

요한 1 서 묵상 18
(9/12/2020, 토)

찬양: 294(416)(하나님은 외아들을)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요한 1 서 4:7-12

말씀에 대한 이해

오늘 본문은 사랑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사랑에 관한 주옥같은 말씀이 기록된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7절 - 사랑하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고 촉구하는 요한의 말씀은 큰 울림이 있습니다. (1) 요한은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 13:34 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요 13:34 -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랑의 원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십니까?

(2) 요한은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며 사랑의 시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냅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 역시 사랑의 본성을 드러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랑의 당위성을 증거합니다.

요한은 8 절에서 그 반대의 경우를 말씀합니다. 8 절 -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사랑이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9 절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요한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화목제물이라고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난 사랑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10 절 - ...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

원자이며, 중보자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됩니다. 사랑은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10 절 -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 그렇습니다. 사랑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으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으시고 먼저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이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이고,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요한은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말씀합니다. **11 절 -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구절은 앞에서 살펴본 사랑의 당위성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을 부여 받았으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드러냅니다. 12 절 -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임재와 내주하심을 경험할 것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주님을 믿는 자가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이루어지느니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텔레이오오’라는 단어가 변형된 것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 당시에 미술가들이 작품을 완성했을 때 표현한 말이라고 합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통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 실천을 통해 비로소 나타나게 됨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 안에 아무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사랑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몸으로 실천함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만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간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2. 우리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이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3. 미국 서부를 휩쓸고 있는 대형 화재가 조속히 진압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